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 방안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6. 3. 8.(화) 14:00
- 장 소: CGV 천안점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6. 3. 8.(월) 14:00 ~ 16:30
- 장 소: CGV 천안점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 방안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정책지원팀장
14:05	14: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유병국 의원
< 토 론 회 > ※ 좌장: 전성환(문화산업진흥원장)				
제1주제 발표				
14:10	14:25	15'	▶ 진영섭 / 감천문화마을 아트디렉터 총감독 ☞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감천문화마을의 사례와 시사점	
제2주제 발표				
14:25	14:40	15'	▶ 박상일 / 천안 명동상가 상인회 사무국장 ☞ 문화성 향상을 통한 천안원도심 활성화 방안	
지 정 토 론				
14:40	15:40	60'	▶ 안상욱/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 최광운/오빠네 게스트하우스 대표 ▶ 이충훈/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병국/충청남도의회 의원	토론자 전체
15:40	16:00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6:00	16:25	25'	청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6:25	16:3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전성환 원장)

목 차

■ 주제발표

- ☞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감천마을의 사례와 시사점 1
진영섭(진영섭 부산감천문화마을 아트프로젝트 총감독)
- ☞ 천안 원도심 문화특성거리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7
박상일(천안 명동상가 상인회 사무국장)

■ 지정토론

- ☞ 원도심의 정체성을 찾고 협치의 틀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27
안상욱(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 ☞ No, 선진사례! Yes, 우리사례 등 33
최광운(오빠네 게스트하우스 대표)
- ☞ 천안 원도심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43
이충훈(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방안 49
유병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주제 발표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감천문화마을의 사례와 시사점

진 영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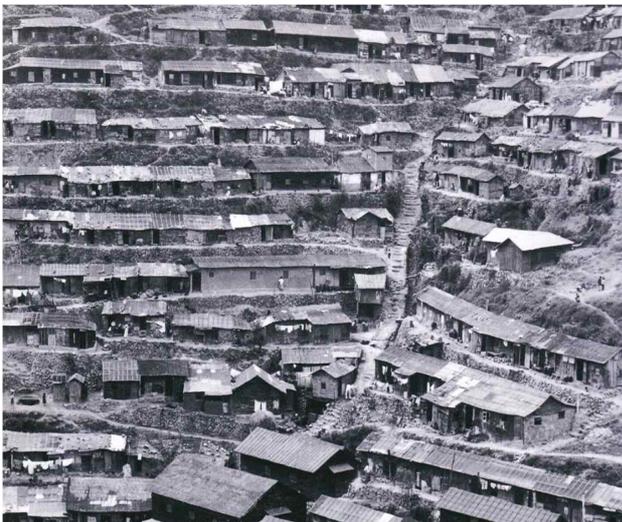
(감천문화마을 아트디렉터 총감독)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감천문화마을의 사례와 시사점

감천문화마을 아트디렉터 총감독
진 영 섭

I. 감천문화마을의 만남

척박한 민족현대사의 단면과 흔적이 보존되어있는 기억의 저장소



<1957년의 감천2동 모습>



<2007년의 감천2동 모습>

감천2동은 한국전쟁 때 피난 내려온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이 집단 이주하여 집을 짓고 이웃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전통적인 마을의 정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작은 집들이 규칙적으로 빼곡히 들어선 마을의 모습은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멋진 저녁노을에 이어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면 또 다른 경관이 연출된다.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초등학교는 8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인구감소와 마을 공동화(空洞化)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기 어려운 곳부터 빈집이 늘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발전의 전망이 없는 듯한 마을에 2009년도에 실행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의 불모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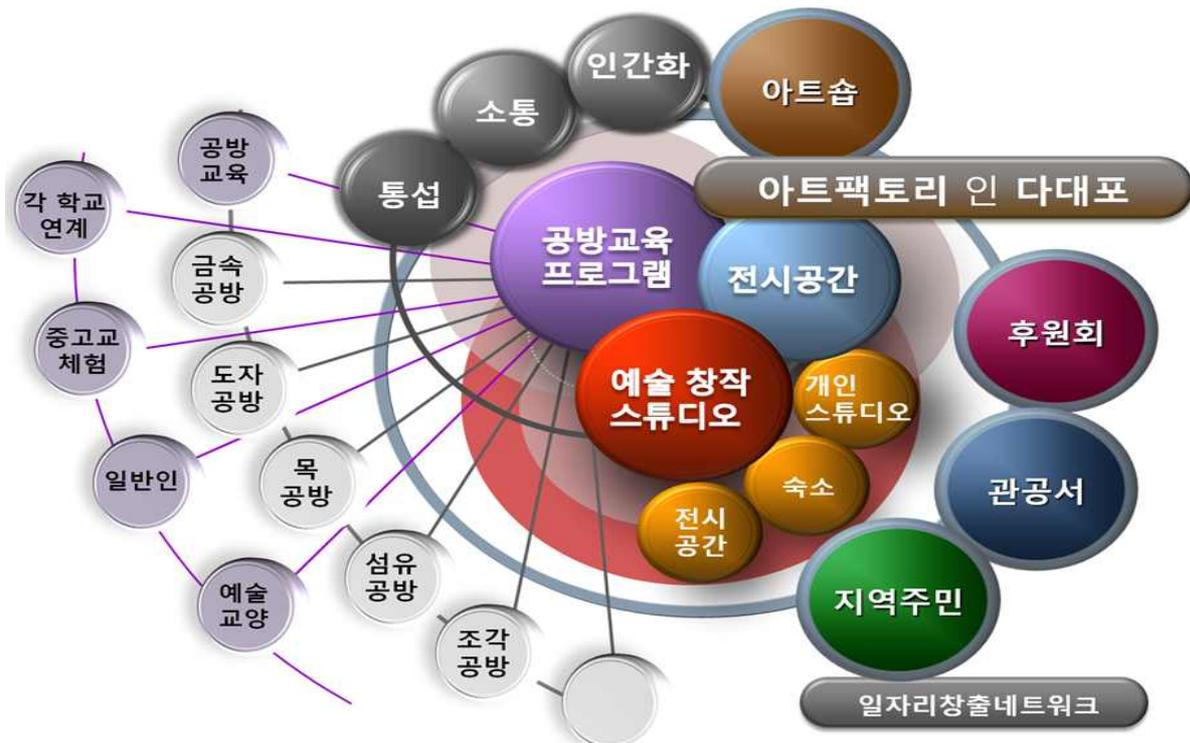
II. 창작스튜디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창조계급의 활성화로 창조주민의 문화강국을 이루자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무지개공단에 중소기업의 공장 건물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해 달라는 의뢰로 지속가능한 예술서비스의 모델을 구축하였다.

아트팩토리의 운영 목적은 예술가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김 구 선생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었다.

먼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작가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설계되었고, 일방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술의 생태적 순환서비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작가들이 직접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중간에 공방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공방교육 프로그램은 작가들에게는 다른 재료 및 도구의 사용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예술체험을 제공하는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술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예술서비스의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운영개요>

Ⅲ.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커뮤니티아트)

모든 길은 막힘없이 통하도록 하고, 앞집은 뒷집의 조망을 헤치지 마라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운영위원회에서는 저녁노을과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낙동강변, 바다 조망권이 아름다운 영도 흰여울길, 독특한 마을경관이 연출된 감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마을미술추진위원회에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제1회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조형 예술가들의 활동 구역으로 적합하고 경관적 특성이 명확한 감천2동으로 대상지를 정하였다. 감천2동은 한국전쟁 직후 전국 태극도 신도들의 집단 주거지로 조성 초기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근·현대역사의 현장이며, 천마산과 옥녀봉을 낀 골짜기에는 4,000여 가구의 계단식 남향가옥이 정연한 형태와 특색 있는 색채 경관과 횡적구조의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고, 산비탈에 계단식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다.

2009년의 첫 번째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보존과 재생>을 위한 문화사업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로 감천2동 마을을 둘러싼 길을 중심으로 조형예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에 관심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주민들과 작가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 만들기를 주제로, 마을 입구의 초등학교 앞 고개를 중심으로 작품을 설치하여, 마을의 아크로스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또한 마을버스가 다니는 산복도로 주변에 작품을 설치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의 삭막함을 탈피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다.



<작품명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주민들의 메시지를 담아 제작되었다.>



<작품명(문화마당)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작품 제작에 참여하여 창조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였다.>

이어진 2010년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와 201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기쁨 두 배 [마추피추 골목길 프로젝트]는 산복도로변 주거환경을 역사, 문화, 예술, 환경이 연계된 주민체감형 창조적 공간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 공동화(空洞化)로 인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골목길 프로젝트는 감천2동 특유의 서정이 있고 정취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골목길을 찾아보는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빈 집을 이용한 테마의 집들을 연결하는 통로에 조형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프로젝트이다.

IV. 창조주민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주민, 공무원의 행정지원, 예술가와 기획자, 국내외 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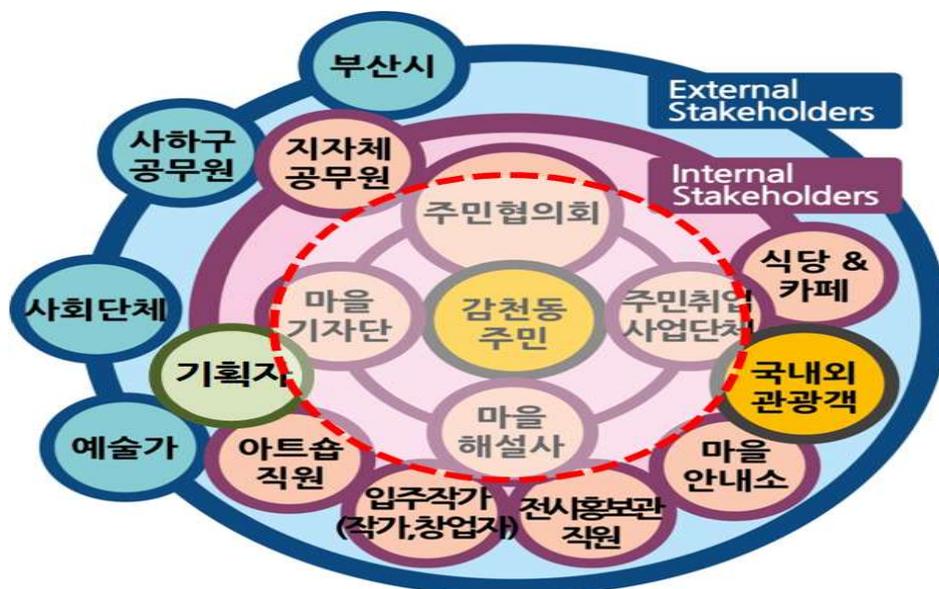
문화마을의 구축과정은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키우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감천문화마을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문화마을의 발전과정 및 운영에 주민참여를 중요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을 중심으로 한 창조적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마을의 창조적 커뮤니티 구성은 주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창조주민의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

뮤니티 공간,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마을 아트숍 등을 통해서 감천문화마을을 창조적 커뮤니티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에는 창조적 커뮤니티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존재한다. 주민협의회, 지역주민, 예술가, 아트숍·카페·식당 등 마을기업 운영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부 방문자그룹 등이다. 이러한 그룹들의 조화롭고 적극적인 활동은 감천문화마을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감천문화마을 창조주민의 첫 걸음은 주민협의회의 결성이었다. 애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마을 소수의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문화마을운영협의회가 결성되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협의회로 확대하였다. 주민협의회의 마을기업 사업단에서는 카페나 맛집 등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창조적 교육을 통해서 예술창작 작품을 제작하고 아트숍에서 문화상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의 인력을 활용한 문화마을의 창조주민이 되어간다. 또한 주민협의회 봉사단에서는 마을을 안내하는 마을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주민협의회 홍보단에서는 마을주민의 생활 이야기와 문화마을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마을신문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도에 만들어진 집수리사업단은 마을기업 수입금으로 2015년에는 54가구의 열악한 거주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문을 연 게스트 하우스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방문자들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마을어르신들의 이불빨래를 수거하여 무료로 세탁해 드린다.



<감천문화마을의 이해관계자 맵>

2015년 한 해 동안 감천문화마을을 찾아온 방문객은 138만 명이며 그중 약 40 만명은 외국인이었다. 감천방문객들이 마을을 찾아오는 이유가 마을의 독특한 경관이라는 점에서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마을을 창조 공간화 하여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창조공간(감천문화마을)의 문화서비스 생성자로서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작가들과 창조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문화서비스의 향유자가 된다.

단순한 시각적 볼거리의 제공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스스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며 생성하고 서비스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생성자인 작가들과 향유자인 방문객이 원활하게 융화할 수 있는 창조공간으로서 마을의 역할이 명확해 진다.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도심 속의 예술·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와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감천문화마을 육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오래된 도시의 노후화 된 건축물 등 기반시설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와 지역을 슬럼화 시켰다. 노후화 된 지역에서는 환경 및 경제, 생활의 재생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 커뮤니티의 부활을 꿈꾸게 된다. 이러한 도시재생 과정에서 창조적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독특한 지역성과 도시구성원의 창조성이 요구된다. 창조적 커뮤니티는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주민의 창조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와 공공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유기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 정착이후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문화자원을 도입한지 20여년이 지났다. 지역의 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공동체예술 활동을 계기로 주민들은 창조적 예술 활동 참여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되었고, 골목길 및 공동화장실 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젊은 층의 방문객들로 마을의 골목길들이 비좁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거주민들의 불편을 동반하게 되었다. 연간 백만 명이 넘는 방문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지역이기에 좁은

골목길을 마을의 하단 부까지 확장을 하여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공동체예술 활동은, 지역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지역사회에 소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외에 일본에서는 낙후지역의 지역개발 수단으로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자원개발을 통해 지역성장을 유도하였으나, 무리한 개발 및 투자로 인하여 지자체가 재정 파탄을 맞거나 기업체의 부도 등 실패한 사례도 나타난다. 관 주도의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는 안 된다며 관광객 유치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실패사례지 관계자의 인터뷰는 현재 도시재생을 위한 창조적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

주제발표 2

문화성 향상을 통한 천안원도심 활성화 방안

박 상 일

(천안 명동상가 상인회 사무국장)

문화성 향상을 통한 천안원도심 활성화 방안

발표자 : 박상일
명동상가 상인회 사무국장

차

레

- 1.문화의 공익성 이해
- 2.문화공간의 활용 현황
- 3.도시재생과 문화성 향상
- 4.청년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5.문화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6.ART&명동! DRONE 프로젝트

1. 문화의 공익성 이해

1-1. 문화의 공익성 이해

-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로 인식=>다양한 종류의 입문,관습의 통로를 거쳐 전달
- 사회가 고유의 경로를 따라 발전하는 과정으로 인식 => 특성이 변하는 방식

- 문화적 다양성
 - 예술성 대중문화 -전문가적 예술 가치
 - 생활문화 -주거 및 일상활동을 통한 문화
 - 음식 및 외식문화 -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여가활동
 - 정보통신문화 - 첨단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소통,홍보,모바일
- 공익적 가치
 - 정서적 함양 , 힐링
 - 휴게공간 조성
 -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

1-1-1. 문화적 다양성



1-1-2. 공익적 가치



1-1-2. 공익적 가치



2-1 천안의 권역별 문화공간 현황

- **신시가지 중심의 상권이동** -> 주거, 교통 편의성으로 인한 변화
- 다양한 문화 활동권 -> 인구밀집효과, 연계상권 지속가능
- **특징성, 상징성 부족** -> 문화 향유 인구 감소, 질적 저하요인
- 두정동 상권 : 유흥 쾌락위주, 편의 및 주거 관점
- 신부 문화거리 : 신세계, 야우리, 터미널 등 교통편의 역할 기능 문화인프라 양호
- 원도심 상권 : **특징성 결여, 구제의류 중심, 청년과 젊은층 문화 실종**

2-1 천안의 권역별 문화공간 현황



2-1 천안의 권역별 문화공간 현황



2-2 예술공간(공연장)의 지역별 현황

- 예술의 전당 : 접근성과 교통편의성, 문화기획사업성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미흡
- 신부 시민회관 : 교통편의 양호, 주차공간 부족, 시설노후화
- 성환 문예회관 : 외곽위치 접근 및 활용도 미흡
- 봉서홀 : 시설 및 교통편의성 양호 대관 및 행사진행 애로사항 발생



문화, 예술의 대중성 확산 및 발전 장애 요인
청년 및 젊은층의 예술활동 불가



원도심 공간 활용, 중소규모 공연 및 활동장소 필요성 인식

2-2 예술공간(공연장)의 지역별 현황



3-1 도시재생과 문화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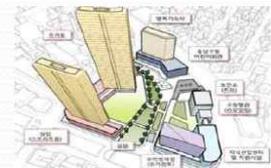
● 도시재생 사업(활성화계획) 내용

- 문화관련
(문화·예술 기반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마중물 사업, 참여플랫폼 사업등 각종 문화예술관련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마을골목문화 조성사업, 시민제안공모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 2만 2,643㎡ 개발하여 동남구청사를 비롯 어린이회관 등 공공시설 및 수익시설(주상복합형) 유치 (2016년말 착공 2020년 준공 목표)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 청년 문화공간 시설 확충 활용

- 주차 및 상설 공연장 조성-동서관통로 상부

□ 음악창작소 선정(문화관광 체육부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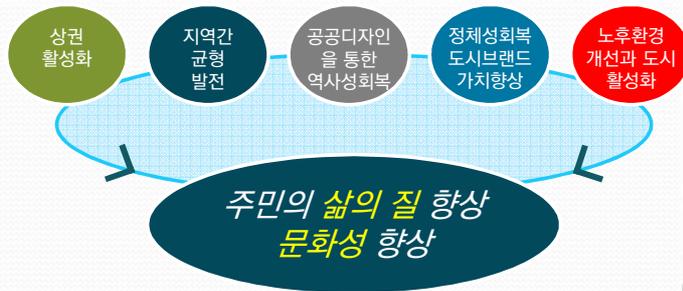
- 음악콘텐츠 메카로 육성, 지방문화 르네상스 시대 선도 20억(국비10억 도비3억 시비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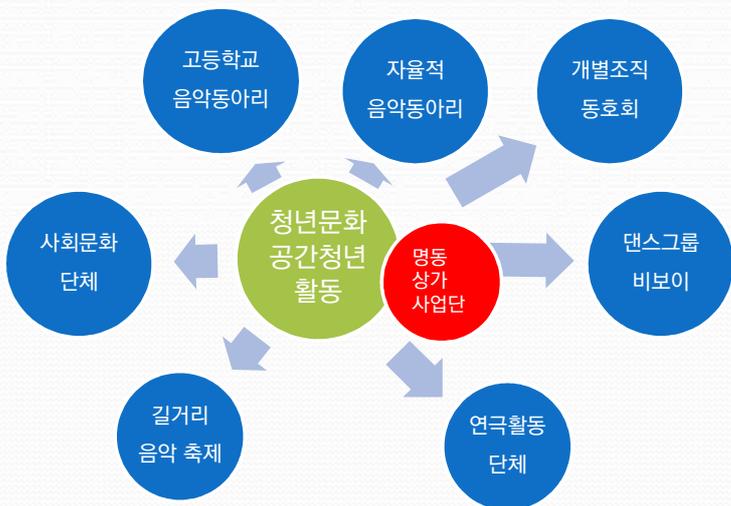
천안청소년수련관
청년문화 및 다문화 청소년 교육 및 체험으로 연계하여 확대

3-2 명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연계

- 주민 자력재생 의식 변화 유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상권의 경제,사회,문화 활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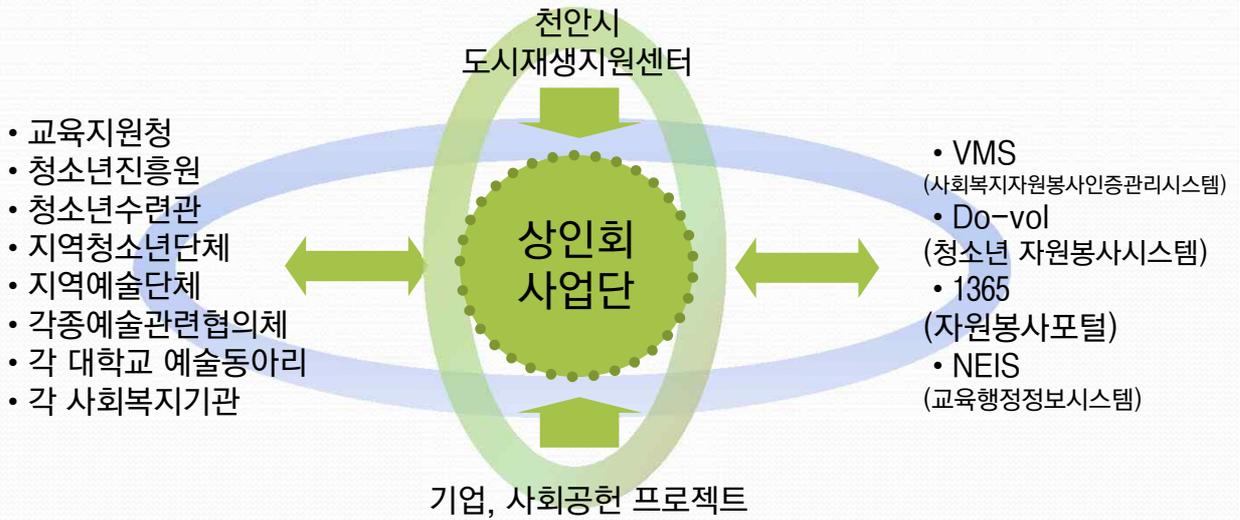
4-1 청년문화생태계의 지속성 확보



Red zone: 랩, 락
 Yellow zone: 팝
 Blue zone: 클래식
 Green zone: 비비이
 Pink zone: 무용

[10대, 20대 젊은 세대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

4-2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4-3 상인회(사업단)의 역할

- CGV청년문화광장조성
 - 각종이벤트 개최, 연중행사 기획
 - 문화이벤트 연합 개발
 - 대학 및 상점가 협업시스템 구축
-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스템
 - 푸드카페, 디저트거리 구성
 - 특화된 젊은층 음식문화유입
 - 대학셔틀버스 운행체계 개선
 - 청년문화산업 공모유치 시스템 협업



4-3 상인회(사업단)의 역할

- 명동QR코드 릴레이
 - 골목 포토존 조성, 인증샷 제도
 - 상점가와 홍보전략 및 서비스 개념 신설
 - 청년 기자단 운영

- 상인회 사업단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임대위원회 운영
 - 민(상인)주도 운영체계 구축-100%가입목표
 - 장기간 임대 지원 시스템
 - 효율적 축제운영
 - 프리마켓 운영,DIY박람회 개최

다양한 제품과 상점 마케팅에 QR 코드를 활용하세요.

위드블로그에서는 상표권을 출원한 리뷰QR 서비스를 독점 제공합니다. 도서와 음반 등은 물론 다양한 제품들과 음식점 등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리뷰QR'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시작하세요.



4-3 상인회(사업단)의 역할

-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발굴 공모
 - ART&명동 Drone Project
 - 예체능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 관계기관,단체 MOU체결,상호협력
 - 공연,예술관련 교육,토크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지원센터
 - 통합지원시스템 협의
 - 문화기반조성 효율,적정성 연구제안
 - 임대료 지원 조례 개정 관련, 기본방향설정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아트큐브136)
 - 문화산업지원
 - 중복사업 단일화 효율적 운영
 - 각종 공모사업 협업 관계 유지



4-3 상인회(사업단)의 역할



5. 문화활동공간(공연장)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 중소 규모형 공연장 신설
 - 청년층의 자유로운 문화활동 공간 확보
 - 150~200석 규모의 공연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 지원 기능
 - 음악창작소+공연장을 통한 시너지효과 증대
-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대시설 확충
 - 관련 업무시설 유치 및 제휴
 - 관객 편의시설 제공(주차, 휴게, 커뮤니티 등)
 - 상점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및 서비스 개선
 - 모든 행정적 지원 및 민원서비스 혜택 부여
 - 차없는 거리 전격 시행으로 주차인식개선 특별 관리

5. 문화(공연장)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제안

ART&명동! DRONE PROJECT

〈도시재생 선도지역 통합예술 프로젝트〉

D: Dynamic

R: Romantic

O: Organization

N: New-Art

E: Epicenter

PROJECT # 을 기대하십시오.

지정토론

- ☞ 원도심의 정체성을 찾고 협치의 틀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27

안상욱(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 ☞ No, 선진사례! Yes, 우리사례 등 33

최광운(오빠네 게스트하우스 대표)

- ☞ 천안 원도심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43

이충훈(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문화성 향상방안 49

유병국(충청남도의회 의원)

원도심의 정체성을 찾고 협치의 틀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안 상 욱

먼저, 훌륭한 토론회를 준비하신 충남도의회와 주제발표자 등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의 성격은 쇠퇴한 천안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등 문화성을 높이는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진영섭 감천마을 총감독님과 박상일 명동상인회 사무국장님의 내용에서 천안 원도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사례의 지역성을 살리는 문화 재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 예술활동이며, 관광객보다 주민의 생활안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천안 원도심의 주체인 명동상인회가 임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회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원도심의 문화중심형 재생사업 과정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총괄 지원하는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으로서 지원센터가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 원도심 쇠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천안 원도심지역인 중앙동과 문성동은 고려 태조 이후 1200여년 동안 천안지역의 중심이었으며, 천안 그 자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행정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시청,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모든 공공기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이 천안에도 도시화가 밀려 들어왔고 이 과정 속에 90년대부터 북쪽

의 신부, 두정 서쪽의 성정, 쌍용, 백석, 불당 남쪽의 청수 등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991년부터 원도심의 인구가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의 신시가지로 급속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과 세무서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도 2000년대 이후부터 새로이 조성된 인구밀집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원도심은 더욱 쇠퇴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62만명 대도시로 성장한 천안시의 급속한 발전은 천안 원도심의 쇠퇴라는 또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천안 원도심의 쇠퇴는 대도시 천안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저는 천안 원도심이 천안의 성장과 발전과정 속에서 현재도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천안 원도심의 재생은 20년전 원도심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아니 되며, 2040년의 대도시 천안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아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천안 원도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 원도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오늘의 주제발표에서는 문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도시재생과정에서 문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원도심에서 문화성을 강조함에는 동의하지만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위력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도시 천안의 쇠퇴한 원도심의 어떤 문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없이 자생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에 있는 수만명의 젊은 대학생과 중부지역의 많은 다문화인구를 문화의 힘으로 어떻게 엮어낼 것인지 실현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거리에 남쪽에 인접한 오룡동에 있던 천안읍성을 천안시민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천안지역의 행정과 문화와 상업의 중심이었던 천안읍성, 관아와 객관이 몇 십년전까지 현존해 있었고, 지금도 그 유적의 일부가 남산과 천안삼거리공원에 옮겨져 우리 곁에 살아 있음을 서로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태조 왕건이 천안도독부를 설치한 게 930년, 이후 조선시대 천안읍성으로 번성을 누렸지만, 일제식민시대에 일제가 철저히 파괴한 천안읍성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제는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인 관아와 객관을 철저히 파괴하고 초등학교를 만들었는데 현재의 중앙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남쪽 오룡우체국 자리 등에 왕들이 묵었던 행재궁인 화축관이 있었으며 그 문루는 현재 천안삼거리 공원에 옮겨져 영남루로 남아 있습니다. 객관의 일부를 헐어 남산에 옮겨지으니 이가 용주정입니다. 왕이 화축관을 나서서 목욕하러 온양온천으로 가던 온양나드리는 땅이름으로, 지신에게 제를 모시던 사직단터는 남산에 남아 있습니다. 동헌 앞의 관아거리는 천안중앙시장이라는 저자거리로 변해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천안읍성과 함께 서울(개성과 한양)에서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던 천안옛길은 신부동의 역말오거리 - 방죽안오거리 - 천안역앞 - 대흥로 - 남부오거리-천안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읍성과 천안옛길은 천안원도심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세워줄 소중한 자산으로 원도심재생 과정에서 잊지 않고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힘을 모으고 있는 서울의 창신송의지역, 전주의 한옥마을, 청주의 읍성 복원, 대구 중구의 읍성터 살리기, 수원의 행궁마을 등 역사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를 재생하고 있는 사례를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1200년에 이르는 천안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그 위에 현재의 젊음 문화를 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원도심 재생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선도지역의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의 기초와 줄거리를 세우는 첫 단추에 지나지 않습니다. 2050년에도 작동될 20년 뒤 30년 뒤의 원도심 모습을 제대로 그려나가야 합니다.

현재 수립된 활성화 계획의 세부사업 추진계획도 공간별, 주체별, 프로그램별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도지역 재생사업의 성공

을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선도지역 재생사업을 정해진 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뒤에도 살아 움직일 원도심으로 재생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센터는 이 땅의 주인이며, 미래에도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갈 명동상인회와 주민들이 스스로 선도지역의 미래 속에서 명동상권의 역할을 찾고, 그 속에서 명동거리와 옛시청길과 은행길 그리고 영성로변과 버들로변과 대흥로변의 공간별 상가마다 제 역할을 입체적으로 그려나가도록 힘을 모아 돕겠습니다.

넷째, 원도심의 재생은 지역협치의 틀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미덕이던 행정중심의 의사결정체계는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서도 뒤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나타난 게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와 행정의 서로의 장점을 매개로 함께 고민하는 협치체계입니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지역에서는 협치체계가 중요합니다.

이 곳 명동상권에서는 생업에 목숨을 건 명동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원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명동상권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인들 나날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민참여형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천안 원도심이 지속가능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명동의 중심거리를 보행거리로 포장해놓았지만 지금은 상인과 주민의 자동차가 차지해버려 고객들이 비켜다녀야 합니다. 명동상인회에서 이 짧은 거리를 차없는거리로 스스로 운영하여 명동상권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상인회와 더불어 이곳에서 생업을 펼쳐나가는 문화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모임도 만들어가야 하며, 중앙동의 다양한 주민협의체와 천안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도 건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키워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원센터는 상인회가 명동상권의 주인으로서 공정하고 개방

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20년 뒤에도 살아있을 주민중심의 협치의 틀을 형성시키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다섯째, 원도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정에서는 많은 돈과 사람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1991년부터 줄기 시작한 원도심의 인구가 오늘도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쇠퇴현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1차로는 천안역에서 방죽안오거리까지의 대흥로에서, 2차는 터미널앞 젊음의 거리에서, 3차는 명동상권에서, 4차로는 중앙동지역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으며, 196,000㎡ 선도지역에는 국토교통부의 중점사업으로 재생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늘고 상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물과 토지의 값과 임대료가 필요 이상으로 비싸지면 사람과 상품이 원도심을 또 다시 떠나갈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벌어진 수 많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픔이 바로 이 땅을 지키던 주민과 상인들이 개발의 이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벗들과 헤어지고 쫓겨나는 원주민 축출 현상(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천안 원도심의 재생과정에서도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든 땅과 헤어지지 않도록 원도심의 집과 가게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임차인과 인차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아가는 주민상생협약이 필요하며, 원도심의 건물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원도심의 임대료가 오르면 이 곳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가게 임대료도 다시 떨어지게 되기에 건물주와 임차상인과 고객이 한 몸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원센터는 명동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건물주와 임차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민상생협약을 검토하겠습니다,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 조례 등에 원주민 축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담도록 검토하여 이 달안에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원센터는 원도심 공간의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등 천안시 여러 실무부서의 사업도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라는 마당과 사는 주민은 같은 데, 여러 중앙부처와 여러 천안시 행정부서가 서로 다른 이름과 다른 예산과목으로 끊임없이 투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의 칸막이 뒤에서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행정 인력의 낭비가 아깝고, 국민과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더욱 아쉽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칸막이 행정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야 하는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지원센터는 최소한 원도심 공간에서 만이라도 중앙부처와 천안시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가리지 않고 천안 원도심 재생이라는 틀을 갖대로 세부 프로그램과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거나 조정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천안원도심의 주민과 주민회, 상인과 상인회 그리고 개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언제라도 찾아와 머리를 맞대고 꿈을 꿀 수 있는 협치의 마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토론이 원도심 재생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선진사례! Yes, 우리사례 등

오빠네 게스트하우스 대표
최 광 운

천안 원도심 활성화 의정토론회

천안청년들_청년대표 최 광 운

페이스북 검색창에 [천안청년들]을 검색후, 좋아요 버튼을 꾸욱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옛시청길2-1/ 010.
2345. 5072

www.oppazip.co.kr / www.facebook.com/code11010

I. No, 선진사례! Yes, 우리사례

많은 전문가들이나 지자체에서는 선진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그것을 지역에 적용 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지자체의 축제나 관광 상품 개발과정에서 그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선진사례가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는 것은 타당하나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선진사례 적용은 지양해야한다.

▶ 벽화마을

: 일전에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벽화마을을 조성하였다. 초장기에는 미술이 바탕이 된 도시재생 및 거리를 조성을 통해서 마을 및 상권이 살아났다.

그러나 그 선진사례를 모든 자체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였고 현재는 전국 어디에다 벽화마을이 생겨나 더 이상 벽화마을은 예전만큼의 관광적, 문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찾는 사람들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몇몇 벽화마을 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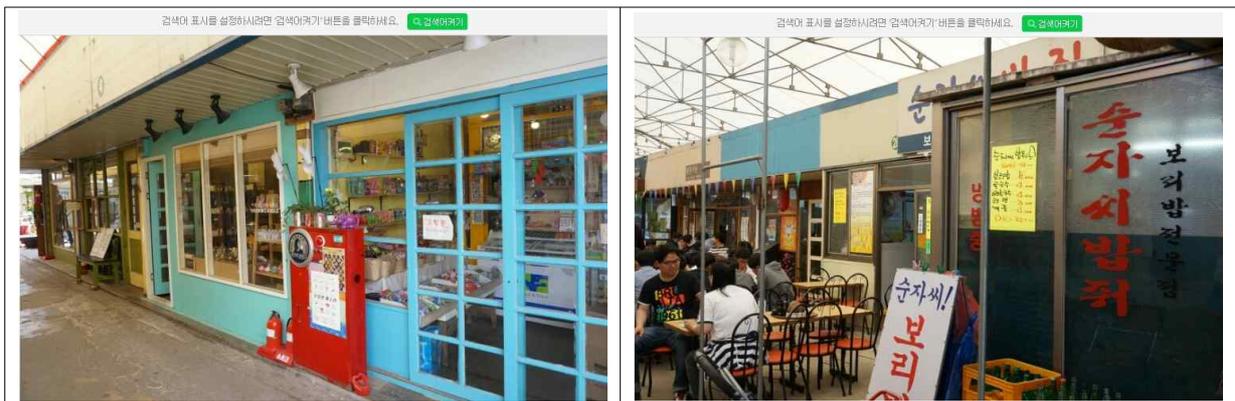
선진사례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지역만의 특징이나 컨텐츠를 찾아 도입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지출만하고 효과 및 지역의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전시적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선진사례의 지역적 특징 및 콘텐츠화를 적용하여 새로운 선진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ex) 인천동화마을

▶ 전주남부 시장 청년몰

: 전주 청년몰은 하나의 선진사례(청년창업 및 도시재생) 인데 현재 전국적 12개 지역에 똑같은 형태의 청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연 현재에도 그 빛을 잃어 가고 있는 청년몰이 각 지역마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남부시장 사례처럼 될 가능성은 부정적이며, 그 지역의 특징이나 특성 잘 표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특히나 천안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이라는 상징적 콘텐츠를 사업과 연계 시킬 수 있다면 전주한옥마을이 전통적 가치를 통한 사업으로 성공 할 수 있었듯, 지역적 특징을 살리면서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ex) 지역의 호두를 이용한 디자인 간판, 독립기념관 모양의 현판 사용
등등

수원의 행궁동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간판 통일화 사업을 하므로써 정돈된 느낌을 안겨줬으나 그 지역만의 특징은 희미해지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사례의 경우에는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식의 사업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지역의 자산 및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진다.

II. Onsign(Online+Signboard) Project : 천안원도심 간판사업

“Searching first and then Visiting a shop”

온라인과 간판이라는 개념을 합한 개념으로써 현재 오프라인상의 간판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꼬집고 온라인 간판의 중요성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

▶ 소상공인을 위한 onsign 강의를 실행

: 간판이란 결국 소상공인의 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간판 좋은 간판이라도 그 역할을 해내지 못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

강좌예제 : 네이버 및 다음 사업장등록 방법 (Searching first and then Visiting a shop) + 상인대학 및 지역 상인회와 협조하며 강좌를 진행이 필요.

* Onsign의 예제 (오빠네게스트하우스 - No signboard project)

* 결국 간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고를 통한 사업장의 매출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 ▶ 온라인 간판지원사업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
 - Modoo(모두) 홈페이지 제작을 통한 온라인 홍보
 - 온라인 간판화
 - 페이스북페이지를 통한 상점의 홍보 및 온라인 간판화
 - 인스타그램 & 카카오토티

II -1. Stoboard Project

[Story + sign board]는 이야기가 담긴 간판이라는 뜻으로 현재 서울의 “000간” 이란 청년 창업팀이 창신동 거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 ▶ 무엇을 파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넘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파는가라는 스토리를 담는다.
(참고: <http://www.000gan.com/index.html>)



거리의 이름들

1차 디자인



2차 디자인



000%



III. Uni-zone Project

Uni-zone PJ는 University + Zone의 합성어으로써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통한 구역별 천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뜻합니다.



- ▶ 지역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지역별 주제를 해결함을 과정의 과제를 주고 지역에 그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주도화 시키므로써 천안원도심은 지역의 인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청년들(대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되어진다.
- ▶ 매년 콘테스트 형식의 활성화사업(구역별)을 하므로써 획일적이지 않고 특별한 활성화사업의 선진사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바탕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면 지역 인재유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타 지역의 일회성, 단발성의 사업이 아닌 지속 변화하는 우리지역의 특화된 사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다.

IV. 중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현재 노령화로 인해서 청년보다 중년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년들이 인생의 2막의 생계를 위한 창업에 많이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이나 배울 곳이 많지 않다.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자체가 조금은 보수적이다

현재 천안원도심을 구성하는 주민은 중년층 이상의 비율이 50%로 넘는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원도심에서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하고자 희망하는 중년층들의 창업활성화 돕는 사업지원에도 포커스를 둘 필요성이 있다.

- SNS 활용을 가게알리기
- 블루오션사업을 블루오션사업으로
- CS을 통한 접객하는 방법
- 컬러마케팅
- IC / BI 마케팅 등

V. 천안원도심의 10개의 스타 청년창업가를 만들어라

- 현재 많은 지원제도들이 새로운 창업가 유치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인 청년창업기업의 질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많은 양의 창업가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원제도가 끝나면 민물이 흘러 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고 다시 새로운 창업가들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현재 원도심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자를 내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지원이 제한적이다. 물론 새로운 창업가 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체들이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 마련도 절실하다.

- ▶ 10개의 성공하는 청년창업가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지원금을 줄테니까 창업을 해달라는 식의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창업가들이 천안 원도심에 와서 창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청년창업가 월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VI. 천안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관심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

- 천안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천안학에 지난 2015년 2학기부터 참여하여서 강의를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지역의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지역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한 결과 너무나 좋아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천안 원도심에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듯 한 공간에 무엇을 만들까도 고민을 해야 하겠지만 그 공간에서의 주요 수요층에 되어줄 대학생(청년들)에게 공간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VII. 지원금의 규모확대

- 현재 지원금이 300만원~500만원 수준
: 아무리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지만 작은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천안 원도심에서 도전적 창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원금 수준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VIII. 야간에 소비할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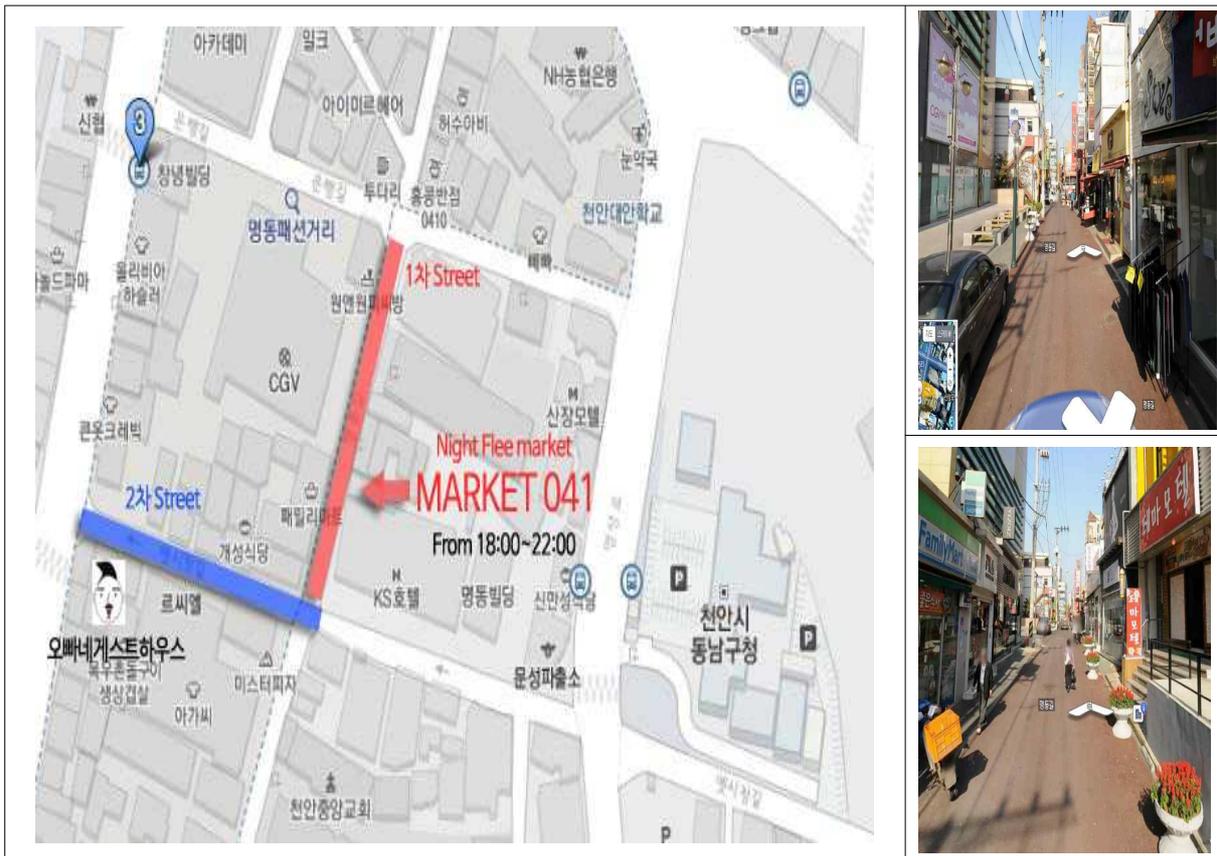
- 다문화 및 청년문화가 담긴 플라마켓 형성 필요
(이동형 플라마켓 부스 제작 필요)
- 야간 공연문화제 도입 및 공간마련이 필요

■ 야간프리(플리)마켓 이름 및 로고

- ▶ 이름 : 마켓041
- ▶ 로고



■ 미니 프리마켓 카 운영지역



■ 경기도 송탄 나이트프리마켓 “헬로우마켓” 모습



천안 원도심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충 훈

I. 원도심 현황

1. 현황

- 1980년대까지 중앙동, 문성동 일대는 천안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으로 교통, 공공기관, 상업시설이 집중
- 서북구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구도심지역의 중요기능들이 서북구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공동화 현상 발생
- 경찰서, 시청, 보건소, 교육청, 버스터미널 등이 이전되고 옮겨간 지역에 대형쇼핑몰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구도심의 기능약화와 함께 상권쇠퇴
- 옛 명동지역은 천안역과, 중앙시장, 구 천안시청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

2. 문제점

- 명동거리 패션상권의 붕괴로 거리 공동화
- 현재 구도심지역 대부분 빈점포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저해 및 안전상의 문제로 부정적 이미지
- 도로정비가 되지 않아 차량접근성 낮음
- 구도심지역에 녹지공간 및 문화공간 부족

3. 과제도출

- 패션상권의 부활을 위한 의류, 쇼핑센터
-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택시, 전철을 연계한 환승센터
- 주변공간을 활용한 문화, 휴식공간 확충

II. 도시재생 성공사례

1. 나가하마시 구로가베 스퀘어 '흑벽의 도시'

- 일반현황

- 인구 8만2000명
- 메이지시대 일본에서 3번째로 철도 부설
- 1900년 국립은행 지점 첫 유치
- 1970년대 이후 중심상가 쇠퇴

- 사업배경

박물관 도시구상과 함께 유리공예라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나가하마시의 1984년 '박물관 도시구상'이라고 하는 마을계획은 나가하마의 문화와 전통적인 마을 분위기를 살려 거리 전체를 박물관과 같이 개성 넘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거리로 만들고자 함
- (주)쿠로가베는 나가하마의 역사성, 문화예술성, 국제성을 포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품목으로 유리산업을 선정하고 1989년 7월 구로카베 은행을 유리관(1호관)으로 개조한 것을 시작으로 총 30개의 점포를 개설함

- 사업추진

- 도심상권 부활위해 관광사업화 추진 결정
- 3대 키워드 설정
 - 1, 건물을 포함한 역사성: 쿠로가베 은행 건물 활용
 - 2, 축제를 포함한 문화예술성: 히카야마 축제 활용
 - 3, 소통하는 국제성
- 국제성 확보 위해 일본 및 세계 주요지역 탐방 조사
- 베니스 유리공예로 도시 활력 발견
- 일본 내 유리테마 관광지자체, 단순 판매에 치중
- 1989 세계유리공예제품 판매 제1호관 [쿠로가베 유리관]
- 쿠로가베 유리공방: 유리공예 제작광경 견학
- 프랑스 요리점: 유리그릇으로 식사(현재는 이탈리아 식당)

- 2009 13개 직영관, 16개 그룹관 연계해 29개 브랜드 점포 확장
- 연간 200만명 방문
- 상점가의 CI작업추진 : 마을 CI작업의 이면에는 다음해 개장되는 대형쇼핑센터에 대응해서 마을 고유의 매력을 창출, 쇼핑센터 방문객들을 마을 중심부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
- 마을의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로고마크, 쇼핑백 포장지 등 약 1년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마을 CI작업진행

● 성공요인

명확한 테마 설정

- 유리라는 테마를 기본으로 유리공예를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
- 기모노 산업 대신 생소한 유리공예 추진에 저항, 극복
- 유리공예, 이탈리아 레스토랑, 미술관, 공방 등 새 유전자 구축

● 다양한 지원조직 작동

- (주)쿠로가베 중심으로 시, 상공회의소, 상점가 조직, npo법인인 마치즈쿠리야쿠바, 나가하마 21세기 시민회의, 데지마숙 등 18개 조직 네트워크 연대



(그림1) 구로가베 유리상점가

2. 가나자와 도시재생

- 가나자와는 일본의 중앙부에 위치한 해안도시로서 전형적인 일본중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
-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개발계획에 의해 역사권개발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추진
- 역사성을 살린 철도역사 계획으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통한 도심재개발 사례



(그림1) 가나자와 역 “모데나시돔”

- 지역교류 활동사업으로는 마에다 자료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문예관, 가나자와 노카쿠 미술관 등 교류 활동 시설을 개설하고 이들 문화 시설에 있어 합동기획전 전개 및 공통입장권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의 회유 성유도 및 시민 참여활동을 유도
- 시가 앞에서 끌고 시민이 뒤에서 미는 전통 문화 보존 정책과 시민들의 3분의 1을 아마추어 예술가로 만들 만큼 잘 갖춰진 문화적 인프라는 '문화 도시' 가나자와 시를 만드는 밑거름
- 가나자와 시를 진정한 문화 도시로 만든 것은 시민예술촌으로 시는 방직공장이 폐쇄되면서 부지를 사들여 지난 1996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하였음
기계가 들어찼던 공장은 문화공연을 위한 연습실로 탈바꿈했고, 주차장은 미술 작품공간과 공원으로 변신



(그림3) 시민예술촌

3. 시사점

- 공공계획에 의한 관리사레지역으로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역사문화경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장소 마케팅 대상으로 활용
- 시민예술촌은 방적공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지역산업의 흔적과 기억을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
- 섬유와 금박 등 전통산업을 육성하여 역사문화경관과 연계시킴으로서 관광산업으로 발전

Ⅲ. 천안시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해..

-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천안역주변의 특화거리조성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동남구청 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등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음
- 지상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조성과 휴식공간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지하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천안 구도심이 축적해 온 시간과 장소의 이야기에는 엄청난 미래 가치가 잠재돼있음. 이를 잘 발굴하면 도시의 문화생태계는 단단해짐

Ⅳ. 결론

- 개발 · 계획적 측면
 - 천안역, 동남구청, 동서연결도로 근린공원과 연계한 도심개발
 - 동남구청 부지의 문화센터를 공연문화시설로 개발, 환승센터 및

지하상가와 연계

- 문화센터와 연계된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와 녹지공간 제공

● 문화적 측면

- 구도심거리에 명확한 테마를 찾아내고 이를 접목한 특화거리 조성
- 도시의 문화자원은 역사적, 산업적, 예술적 유산과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지방의 고유한 생활전통, 축제, 제례의식, 각종 예술·문화 미디어 매체의 콘텐츠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
- 영국 셰필드 시는 '대중 팝 음악의 시초'라는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문화적 콘텐츠를 확보.
이렇게 문화산업지구 지역이 형성된 후 인근 지역이 활성화 되고, 지역민과 관광객의 증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를 활성화
- 따라서 기존의 문화적 자산의 활용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생산성을 지닌 문화자산의 활용은 도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적 자산을 창조하고 발굴
- 이렇게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해외의 사례들은 문화 공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

*참고자료

- 천안구도심 명동지역 도시재생 전략수립연구, 한국산업기술학회, 2014
- 일본의 주민참가형 마찌즈꾸리 사례, 2002

천안 원도심 문화의 거리조성 등 문화 향상 방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유 병 국

《메모》